



CG Watch 스페셜 리포트

- 한국편 -

2024.07.12

ACGA CG Watch



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(ACGA)가 2003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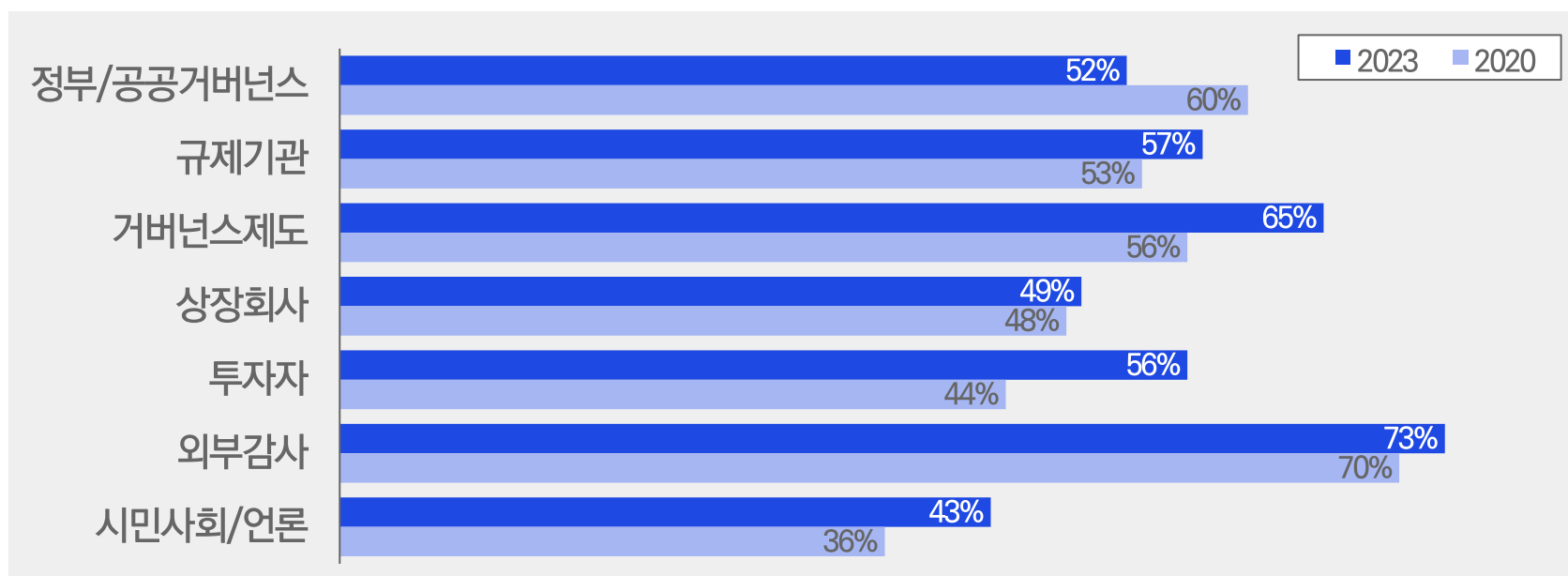
아시아 12개국의 기업거버넌스를 7개 분야로 나누어
각 분야의 세부항목(총 108개)별로 6단계(0~5)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백분율로 환산

2024년 6월

“Dismantling the discount(디스카운트의 분해)”

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 세부분석 특집 출시

[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7개 분야 점수 2023 vs 2020]



I. 7개 분야별 정리 (1/3)

정부/공공 거버넌스 - 6위

2020	2023
60%	52%(▼8%p)

7개 분야 중 2020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

01 : 전략의 통일성 부재

FOR
개인투자자

- ✓ 의무공개매수 제도
- ✓ 전자주주총회 도입
- ✓ 기업분할 시 소수주주 보호 방안



- ✓ 사면
- ✓ ESG공시 연기

FOR
기업

02 : 정부/공공 거버넌스의 종합적 지원 부재

규제기관 - 7위

2020	2023
53%	57%(▲4%p)

GOOD

시장 감시 및 집행 역량 강화 & 예산 확대

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(regtech) 추진

주주총회 전자투표 플랫폼 확대

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

불공정 거래 과징금 제도

Checkpoint

입법과정에서 공개협의 절차 개선 및 규제집행에 관한 통계 상세 제공 필요

I. 7개 분야별 정리 (2/3)

거버넌스 제도 - 9위

2020	2023
56%	65%(▲9%p)

GOOD

상세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
내부자 거래 과징금 제도 개정, 주식의 질권설정 및 보유형태 변동 공시 의무화

Checkpoint

보수의 총액과 평균금액만 공시^(*1), 짧은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(14일 전) 개선 필요

상장회사 - 8위

2020	2023
48%	49%(▲1%p)

반도체, 전자, 통신 등 업종별 대형주 15개 회사의 거버넌스와 공시 관행을 조사하여 평가

GOOD

깊이 있는 지속가능보고서 공시, 사외이사 고정 보수, 높은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 준수율

Checkpoint

이사회 평가, 다양성, 교육 정책 개선, 이사 및 임원 보수 상세 공개

(*1) 연봉 5억원 이상인 사내이사를 제외

I. 7개 분야별 정리 (3/3)

투자자 - 3위

2020	2023
44%	56%(▲12%p)

①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 ② 코로나19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개인투자자의 주주 제안

기업경영의 투명성 증진 및 주주권 강화에 기여

외부감사 - 8위

2020	2023
70%	73%(▲3%p)

GOOD

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후 자율성 강화

Checkpoint

국제표준과 비교 가능한 한국 감사기준의 영문 버전 제공 필요

시민사회/언론 - 10위

2020	2023
36%	43%(▲7%p)

GOOD

기업거버넌스 및 ESG 이슈 전문 단체의 활발한 활동 지원 필요

ex. 2019년 설립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(KCGF) 등의 비영리 단체

III. 기업거버넌스 제도 개선 과제

“ 한국, 평균점수 57.1점으로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8위 ”

ACGA 기업거버넌스 조사 결과					
국가	2023	2020	국가	2023	2020
호주	1	1	인도	6	7
일본	2	5	한국	8	9
싱가폴	3	2	태국	9	8
대만	3	4	중국	10	10
말레이시아	5	5	필리핀	11	11
홍콩	6	2	인도네시아	12	12

<p>CG 로드맵</p> <p>3년에서 5년 동안의 중기적인 기업 지배 구조 (CG) 로드맵 개발 필요</p>	<p>이사에 대한 교육 필요성</p> <p>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필요</p>	<p>사외이사</p> <p>이사회 논의 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접점 역할 수행</p>	
<p>자사주 정책</p> <p>자사주 취득 후 조속한 소각,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한 보유 금지, 활용 계획 공시 등</p>	<p>스튜어드십 코드</p> <p>2016년 개시 이후 변함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시 개정</p>	<p>주주총회 제도 개선</p> <p>주총 소집 공고기간 연장, 분산개최를 위한 방안 마련, 전 상장회사에 표결 및 결과 공시 의무화</p>	<p>해외 투자자 고려</p> <p>정부 및 규제기관 주최 정책설명회 및 청문회 영문자료 제공</p>